

# 농촌지역 식품 사막화 해소 앞장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장터 차량 제막식 · 협약 체결... 임실시니어클럽 수행

임실군이 농촌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내 집 앞 이동장터 사업을 위한 이동장터 차량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장터 사업은 농촌 마을의 소매점 감소로 인해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거호호 이동장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장터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을 완료해 지난 20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동장터 운영은 임실시니어클럽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군과 임실시니어클럽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며 안정적 운영체제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사업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 관계자, 임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위원, 군 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업무



임실군이 농촌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내 집 앞 이동장터 사업을 위한 이동장터 차량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심민 군수, 김윤호 임실시니어클럽 관장.

협약 체결과 차량 제막식, 차량 보관을 함께 진행했다.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임실을 이도리와 성가리, 두곡리를 제외한 임실을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하고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여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찾아가는 임실 이동

장터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의 강점을 살려 다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공적인 모델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이동장터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이상현 전도의원, 남원시의원 출마 선언

민생경제 · 복지 · 농업 · 교육 등 4대 핵심 비전 제시

전북도의회 3선 의원으로 부의장, 교육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이상현씨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도통 · 한교지역 남원시의회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민생경제는 든든하게, 복지는 따뜻하게, 농업은 활

기차게, 교육은 안전하게'라는 4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남원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의원으로 12년, 남원 발전을 위해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제 욕심이 앞섰던 순간도 있었다"며, "이



제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박이인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남원시 주민 천면 용담 출생으로, 남원중앙초 · 용성중 · 남원고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의회, 울산 동구의회 방문해 협력 방안 논의

임실군의회의(의장 장종민)는 지난 16일, 하반기 의정 연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와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 동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양주영 부의장,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 의회 직원이 참석했으며, 동구의회에서는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날 울산 동구의회 의



원들이 임실군의회를 공식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례와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영 · 호남 지방 의회 간 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두 지역 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임실군의회는 지난 여름, 무분별한 해외연수로 국민의 가까운 눈총을 받고있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난 7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군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의회 구성원들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최동규) · 4대폭력 예방(김미진)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김영웅)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농촌공간 체계적 개발 본격화

순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 재생 시행계획' 주민공청회 가져

순창군이 농촌공간의 체계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를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군은 21일 복흥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북서부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복흥 · 쌍치 · 구림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 재정성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초생활서비스 확충과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특화지구 육성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소개됐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주민공청회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순창의 미래 농촌공간을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농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순창군의 농촌공간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를 모아주시면 더 멋진 행복 순창의 밑거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12월까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순창군은 농촌의 난개발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능이 약해진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바 있다.

/순창=이왕일 기자

## 남원여성새일센터, 업무협약 · 일자리 협력망 회의 개최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는 21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다양한 고용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협약식에는 남원노인요양병원 등 17개 기관 · 업체가 참여해 구인 정보 공유,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일자리 협력망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에 80명

이 참여해 6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올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182명의 구직자에게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교육을 실시하였고, 724명의 경력단절여성의 취 · 창업을 지원했으며,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을 통해 8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여성인턴사업을 통해 24개 업체 47명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43개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성의 고용 촉진과 직장 적응 지원에 힘써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행복살림단 모니터링 진행

남원시는 지난 20일부터 2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성과 목표 달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



투어졌으며, 지난 8월에 실시한 모니터링에 이은 두 번째로 사업 담당 공무원 37명, 지역사회보장 실무부와 위원과 시민 30여 명이 참여하여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남원시 · 권익위, 30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남원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관계자들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권익구제 서비스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공간 인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 속 고충민원 상담과 더불어 사회복지협의회의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상담과 신용 · 재무 상담 상담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단순 민원이나 공금증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며,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심층 조사와 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23일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임실군이 오는 23일 군청 광장에서 4분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고령화사회로 인한 중증 수혈 환자 증가와 겨울철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실군청 광장에 헌혈 차량이 방문하여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분기별로 꾸준히 헌혈 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4회에 이어 올해도 4회에 걸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 체크와 헌혈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과 상시 학습 4시간 인정 및 소정의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렸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